

부산불교계 사회복지 사업 활발

울 '내원' 등 법인 설립... 복지시설 백여곳 무료진료·급식·장학등 다양한 사업 전개

부산 불교계의 복지활동이 큰 결실을 내리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협의체'도 구성될 전망이다. 각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에서 부산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2곳. 내원정사(주지 정년)가 '내원'을, 관음사(주지 지현)가 '늘기쁜마을'을 설립했다. 이로써 부산불교계의 사회복지법인은 95년 처음 설립된 불국토를 비롯 공덕원 법어사 등 5개로 늘어났다.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은 복지관 위탁운영, 장학사업, 무료급식, 병원위문활동, 효도관광,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 각종 건강·생활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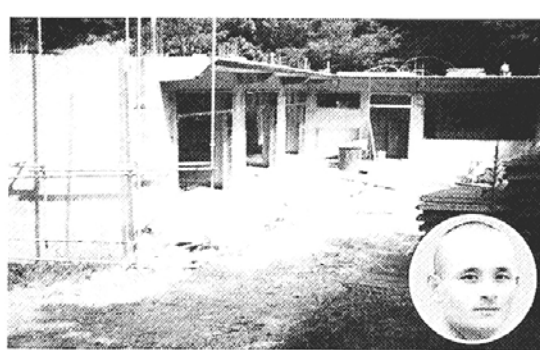
내원은 장학사업과 무료진료사업, 병원위문사업 등과 함께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늘기쁜 마을도 효도관광 무료급식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현재 부산지역 교계 복지시설은 1백여곳. 이 가운데 90%이상이 95년 이후에 설립됐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역의 각 복지시설들은 수적증가에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IMF 관리체제를 맞아 무료급식, 불국토 한의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농촌지

역 순회진료에 나서기로 하고 16일 밀양시에서 제1차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불국토 한의원은 노인 실직자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산 교계의 각 복지시설들은 저소득가정,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미회 기자 (mhcheon@buddhania.com)

우리절 불사 봉인사 '자광전'



◇60%의 불사가 진척된 자광전 전경. 원내는 주지 적경스님.

생활불교 수련원 세운다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자락에 자리잡은 봉인사(주지 적경) 앞마당에는 생활불교를 일컫는 수련원 '자광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4월4일 공사를 시작한 자광전은 총 건평 1백26평 규모로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도 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열린시민휴게장과 공공화장실을 꾸밀 예정. 2층에는 3억원 가운데 1억6천만원 정도가 부족해 내장공사 마무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다 얼마전 수해로 토사와 물이 공사 현장을 덮쳐 피해를 입기도 했다. 현재 봉인사는 수련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부처님 당시 잠업했던 영산회상을 재현하고자 금강성에 밝힌 1천2백50명의 나한 상상 봉안봉사를 추진중이기도 하다.

스님은 "나한상상 봉안불사와 더불어 노년을 수행으로 회향할 불자들이 건립에 뜻을 모아주면 더욱 좋겠다"면서 "불자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500여년전 창건된 봉인사는 1619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탑에 봉안돼 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되고, 부처님 사 6세손인 중앙대사를 비롯 조선의 3절로 손꼽히는 설득스님이 주석하며 고승대덕을 배출해 냈던 곳이다.

일제시대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본으로 밀반출 되는 등 폐사가 돼버린 것을 지난 78년 한길로 법사가 사재를 털어 땅을 사들여 법당을 짓고, 그 맥을 오늘에 살리고 있다. (0346)574-5585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열린 시민휴게실 추진 공정 60%... 자금난 겪어 1250 나한상 봉안 계획

30평 규모의 수련장과 식당, 그리고 수련생들을 위한 화장실과 세면장을 갖춘 6개의 방을 마련하게 된다.

"자광전은 옛 한길로 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열린 시민휴게실과 더불어 올 가을에 찾아와서 스스로 맡겨 수행을 하고, 상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생활속으로 다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수련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주지 적경스님은 말한다.

현재까지 60%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총공사비

진각종 중무 전산화 추진

통합DB·네트워크 구축...통신포교 선도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중무행정 전산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진각종은 최근 정보화사업 시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실을 개설, △문서처리 표준화·전산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부서별 업무관리 △중단과 지역 심인당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도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대내외의 기초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1단계 사업으로 중무행정 전산화와 통신포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성초 통리원장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중포교와 체계적인 중무행정을 통한 신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진각종은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종단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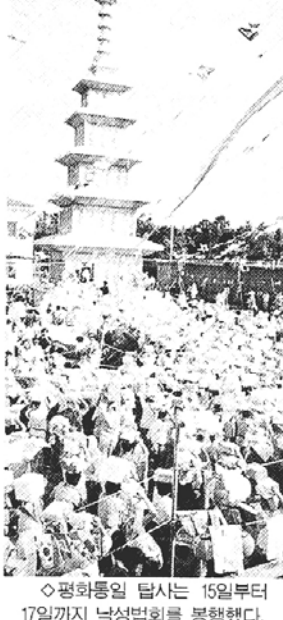
도광선 기자 (psdo@buddhania.com)

통일불사리탑 낙성 불자 1만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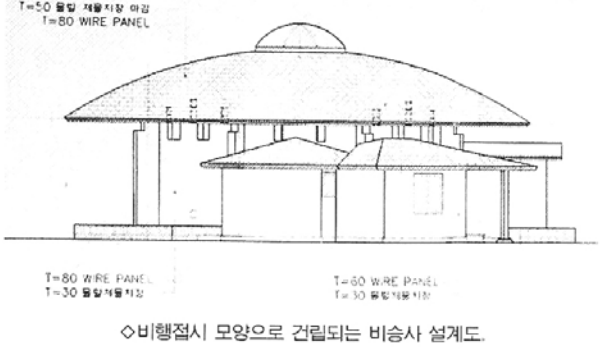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사(주지 도림)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국의 불자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통일불사리탑사 낙성법회를 비롯 불사리 이운 및 마장수기, 법회예찬 108합회, 법화경 사경 이운식, 일보일배타들이, 지정탑 점안식 등이 진행됐다. 평화통일불사리탑사는 88년 기공식을 갖고 10년만에 낙성했다.

〈이영자 명예기자〉



◇평화통일 불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비행접시 모양으로 건립되는 비승사 설계도.

비행접시형 법당 건립

항공사령부 호국비승사 30평 규모 연말에 완공

비행접시 모양의 이채로운 군법당이 지어진다. 경기도 이천 육군항공사령부 호국비승사가 막사법당 10년만에 비행접시 모양의 새 법당을 짓는다. 21일 기공법회를 갖고 공사에 들어간 호국비승사는 비행접시 모양의 철골 동형 법당 30평과 묘사채 식당 등으로 구성,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담당 군법사가 없는 가운데 장·사병불자회 회원 80여명이 법회를 주관해 온 비승사는 새로운 형태의 법당이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포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령부의 이미지를 포함시켜 지어지는 이 법당은 불자 설계사인 정은영(예경건축사무소대표)씨가 무료로 설계했다.

8천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이며 조계종 포교원이 건축기금 3천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공사비는 불자회 회원들이 화주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 (국민은행 230-01-0334-574 신동우)

임연태 기자 (ytlim@buddhania.com)

천태종 청년회 배구대회 27팀 참가...영춘지회 우승

천태종 제25회 상월원각 대조사가 전국청년회 배구대회가 16일 충북 단양군 영춘중학교에서 열렸다. 전국 27개팀이 참가한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영춘지회배구단(회장 안기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부산 삼광사가, 3등은 서울 관문사와 울산 정광사가 공동 수상했다.

도광선 기자

검 판돈 2백만원 수재의연금 전달

부산불교 운전기사회 수재민들의 시름이 온 국토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가 검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의 수재민 돕기에 보시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17일 국제신문사를 방문, 3백여 회원이 택시내에서 검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의 수재민 돕기금을 전달, 나와 내가 돌아 아닌 불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번 보시행은 10년동안 꾸준히 해 온 부산운전기사의 실천중 하나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개인택시를 '달리는 법당'으로 꾸미고 '거리의 포교사'로 활동해 온지 10년,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 교계

수재민들의 시름이 온 국토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가 검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의 수재민 돕기에 보시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부산운전기사회.

행사시 교통정리, 장애인 탑승시 30% 할인, 교통표지판 청소, 사할 주변 환경 보호 등과 함께 검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의 수재민 돕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고영호 상임부회장은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수재민이 결코 남아 아니므로 내 형제 내 부모의 아픔에 조금만 힘을 보탤 뿐"이라며 수재민들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천미희 기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부산운전기사회.

통도사 톨게이트 이전 반대 주민등 서명운동

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통도사와 주민들은 불자들의 통불편과 상권저해 등을 들어 이전반대를 표명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주민 서명운동을 펴 자기로 했다.

또한 통도사는 현재의 톨게이트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백 삼천부 적심(간) 삼천백을 쉽게 하는 책
- ▶ 마음을 맑게 주는 새 법구경(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법문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 재미있는 금강산재(상·하)
- ▶ 불교 EQ 12
- ▶ 불교 만자 시미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국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찢어오는 바다.

돌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는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원장 이영숙(본명)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히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릿밭 들결 파랑새 부서쳐 내면

파도를 온몸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끝내 파도울음 러트리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건강에의 신비! 옥

태교에서 무덤까지 옥을 달고 산 한국인들

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 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엔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귀를 기른 결과 솟음 쥐의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물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84.8%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랴야 승배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옥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